

반딧불축제 친환경 프로그램 호평

무주군, 23회 축제 평가보고 및 토론회 개최 주차안내·휴식 공간 부족·행사 등 보완 필요

제23회 무주반딧불축제 평가보고회 및 열린 토론회가 황인홍 무주군수와 진용훈 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주민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전통문화의 집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무주군이 주최하고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제23회 무주반딧불축제 영상물 시청과 평가보고,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열린 토론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제23회 무주반딧불축제 평가요역(8월 31.~9.8. / 신비탐사객 포함 표본 564명 대상 / 설문, 면접, 현장 모니터링 등)을 진행했던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방문객 평가와 발전방안 등을 공유해 관심을 모았다.

평가결과를 보고한 박성근 박사(전주대학교)는 “올해는 친환경축제에 걸 맞는 프로그램 운영과 공간 및 야간 프로그램 확대 등이 돋보였다”라며 “제전위원회를 주축으로 유관 기관, 시민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잘 이뤄졌던 만큼 이를 시스템으로 구축해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에 대해서는 △반디정원, 생태체험놀이터 등 자연 친화적인 공간 구성과 △반딧불이 체험을 중심으로 한 지역문화, 놀이, 공연프로그램의 조화, △축제 안내시스템과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의 적절한 배치와 운영 등을 꼽았으며, △남대천에서 진행되는 야간 프로그램 관람 방식과 △민속촌 전시관 형태

의 ‘무주이야기’ 장소 및 운영방식, △반디나라관 내실 강화, △치어방류 행사, 피서존, 포토존 등 납대천 행사들의 운영방식 등은 더 큰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23회 무주반딧불축제 평가는 주요 프로그램 만족도를 비롯한 관광행태와 서비스 평가 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개선사항 등을 주요 항목으로 진행됐으며 분석 결과, 주 방문 집단은 20~40대(80%)로 전주/전북, 대전/충남, 서울/경기지역에서의 유입이 많았으며 가족/친지들과 동반(55%)해 당일(76%)로 다녀가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객들은 축제의 재미와 프로그램, 지역문화, 시설안전에 평균 이상의 만족의사를 표시했으며, 주차안내·시설, 휴식 공간(시설)의 부족과 음식(먹거리), 행사·관광, 체험행사 부족 등과 관련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우리는 하나! 무주가 좋다

무주군, 귀농·귀촌 어울림한마당 개최

무주군 귀농·귀촌인 어울림한마당 행사가 (사)무주군 귀농귀촌협의회 주최·주관한 가운데 24일 무주읍 지방공원에서 개최됐다.

“우리는 하나! 무주가 좋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군민 화합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만드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황인홍 무주군수와 유송열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무주군 귀농·귀촌인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반디예술단과 귀농·귀촌인들이 함께 식전무대와 문화공연을 펼쳤으며 이어 기념식과 먹거리(케이팅, 떡메치기 등) 행사, 즐길거리(중고장터, 농산물 판매, 동아리 체험) 행사 등이 진행됐다.

황인홍 군수는 “불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풍성한 이 자리가 모두에게 이로운 화합의 장이자 소통의 장, 공감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며 “귀농·귀촌인 여러분께 무주가 온전한 집이 되고 삶터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도 무주가 고향이고, 이웃이 가족이고, 모두가 군민이라는 생각으로 무주를 아끼고 무주다운 무주를 만드는 일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다.

무주군 귀농·귀촌협의회 김웅회장은 “귀농·귀촌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마음을 더놓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서협의회 김웅 회장과 회원, 그리고 주민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무주군의 귀농·귀촌인은 모두 2,680세대 3,633명(2013년~)으로 올해만 487세대 580명이 진입했다.

무주군은 귀농·귀촌인 유입을 위해 올해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과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농기주택 수리, 집들이 비용 지원, 청장년 귀농인 영농 지원, 건축설계비 지원, 고령 은퇴 도시민 영농 및 생활지원 등에 총 4억 9천여만 원을 투입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매아리

진안군,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 '시동 11월까지 보이싱피싱 등 예방법 안내

진안군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생활안전교육은 노인, 장애인, 어린이, 다문화 가족 등 안전취약계층의 사고피해가 점차 증가되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전교육 대부분이 학교, 직장 위주로 교육기회가 부족한 이들에 대한 맞춤형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24일 진안군노인복지관에서 읍면 노인일자리 어르신 100여명에 대한 가스안전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장애인복지관 등 4개소에서 교통안전, 응급처치, 보이싱피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강사가 직접 해당 시설을 방문해 실생활에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사고사례를 공유하고 예방법 등을 안내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크고 작은 재난사고로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생활밀착형 안전 교육 강화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아나바다 행복 나눔 장터에 물품 기부하세요

장수군, 28일부터 31일까지 접수... 11월 2일 장수누리파크서 열려

장수군이 녹색소비자를 통한 재화의 선순환 실천과 기부문화 실현을 위해 오는 11월 2일 열리는 2019년 하반기 아나바다 행복 나눔 장터 물품을 이달 28~31일까지 접수받는다.

수집물품은 의류와 도서 등 중고물품, 기타 물품 등이며 분관 신문고 옆에 수거부스를 운영해 군 신하 직원 및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 모두의 기증품을 받는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아나바다 장터는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하고 장수군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2일 오전 10시부터 장수누리파크에서 행복 나눔 장터와 재활용품을 활용한 체험 부스 및 먹거리판매부스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 운영하는 부스 판매금은 전액 사랑의 공동 모금회에

지정기탁 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니 물품접수 기간 동안 주민 모두의 따뜻한 손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당일 누리파크에서는 2019 장수레드푸드 가을음악회 가 풍성한 불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됐으니 참여해 좋은 추억 만들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체납차량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3건 이상인 경우 번호판 영치

진안군은 24일 진안경찰서·한국도로공사진안영양소 관계자 등 10여명과 합동으로 진안IC 출구 요금소 앞에서 체납차량 일제 단속에 나섰다.

이번 합동 단속대상은 자동차세와 속도위반·책임보험 등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이다.

이날 단속결과 체납 1~2건인 경우에는 현장 징수와 납부안내를 유도하고, 3건 이상인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했다.

또한 타 지역에 등록된 차량으로 징수 촉탁된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가 실시됐다.

군은 이날 합동단속에 앞서 단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방법에 대한 현장 설명을 시작으로 기관별 체납차량 식별을 위한 차량 영상인식시스템과 단말기(PDA) 및 순찰차 등의 장비를 활용방법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체납세 납부 홍보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납세의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앞

으로도 체납 근절을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과 공매 처분 등 과감한 행정상 제재 조치를 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체납차량 합동단속은 전라북도도와 전북지방경찰청·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등 관계기관 협약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시행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제7회 무주군 지역아동센터 연합 희망축제가 24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무주군, 지역아동센터연합 희망축제 성료

제7회 무주군 지역아동센터 연합 희망축제가 24일 저녁 6시 30분부터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군 지역아동센터 연합회가 주관한 가운데 열린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유송열 무주군의회 의장, 장성열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사회단체장들과 주민 등 3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참석자들은 행복나눔스쿨지역아동센터 팀의 난타공연을 관람하고 기념식과 명랑운동회 등에 참여해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황인홍 군수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더 큰 믿음을 가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며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아이들에게 든든한 공부방이자, 안전한 놀이터, 편안한 쉼터로 사랑받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청 가야문화유산 현장교육 각 시군 전문가 특강 및 학습

장수군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 장수 동촌리 고분군 등 가야문화유산에 대해 공직자들이 먼저 이해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장수군청 직원 가야문화유산 현장교육’을 24~2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현장교육은 장수군청 소속 공직자 40여명이 참여해 화려한 철기문화를 꽃피운 가야문화의 주요 지역을 방문해 가야문화의 역사적 위상과 역할, 문화유산 등에 대해 각 시군의 전문가 특강과 함께 직접 보고 체험하는 현장학습으로 구성됐다.

또한 국립김해박물관과 김해 대성동고분군, 고령 지산동고분군, 함안 말이산고분군, 함천 옥전고분군 등을 방문해 가야문화유산을 이해하고 홍보할 수 있는 소양을 마련하고 장수군 가야문화유산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앞으로의 보존·활용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장영수 군수는 “가야와 백제의 역학관계와 교류사를 밝힐 수 있는 장수군 가야문화유산의 위상과 역사성을 널리 알리고 밝히기 위하여 공무원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함께 연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